

“기부의 가치…겨울 녹일 ‘희망의 온기’ 함께 만들어요”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대장정 돌입

광주 51억2천만원·전남 114억 모금 목표
姜시장 “시민들 정성 모아 희망 전할것”
金지사 “취약계층 주면 관심·도움 절실”

‘기부의 가치’로 올해 겨울을 녹일 ‘희망 2026 나눔캠페인’이 대장정을 시작했다.

‘희망의 온기’ 1도가 올라갈 때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을 전해줄 나눔캠페인은 내년 1월31일까지 진행된다. 광주는 51억2천만원, 전남은 114억원 모금을 목표로 한다. 올해 캠페인 슬로건은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광주·전남’이다.

▶관련기사 12면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광주 5·18민주광장과 전남도청 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 수온주가 1도씩 오른다. 목표액에 도달하면 100도를 달성한다.

광주시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일 5·18민주광장에서 ‘희망2026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내년 1월31일까지 집중 모금활동에 돌입했다.

모금된 성금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 및 기관, 단체 등에 ▲기초생계 지원 ▲교육·자립 지원 ▲주거·환경 개선 ▲보건·의료 지원 ▲심리·정서 지원 ▲사회적 돌봄 강화 ▲소통과 참여 확대 ▲문화격차 해소 등 8개 배분 분야 복지사업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모금 참여는 방송사(KBS광주·광주MBC·KBC광주방송), 5개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광주



“사랑의 온도 올려주세요”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하기 위해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전개하는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출범식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도 이날 전남도청 광장에서 열려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사랑

의 온도를 올리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062-222-3566) 등에 문의하면 된다.

이날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이정선 시교육감, 신수정 시의회 의장,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감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등 기관 단체장들이 함께 첫 기부에 참여했다.

기업 첫 기부에는 기아오토랜드, 광주은행, 농협광주본부, 케이티엔지 광주전남본부, 하나은행 등 5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아너소사이어터(1억원 이상 고액기부) 4명 신규 가입과 광주지방세무사회 세무사 24명의 나눔리더(100만원 이상 기부) 단체 가입식도 함께 진행됐다.

강기정 시장은 “올해도 5·18민주광장에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졌다”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정성을 모아 따뜻한 희망을 나누고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이날 전남OK도민광장에서 ‘희망 2026 나눔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개최했다.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114억원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태균 도의회 의장, 허영호 전남공동모금회장, 김대중도교육감, 모상모 전남경찰청장 등 주요 기관·단체장, 기업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나눔캠페인의 첫 기부금은 한전KPS 5



억원, NH농협은행 전남본부 1억원, 전남도의회 1천100만원, 전남도교육청 1억원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나눔 열기를 달궜다.

나눔캠페인 참여를 바라는 도민은 각 사군음·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거나 전남 사랑의 열매 대표 계좌(농협 301-4000-3000-01)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인 김영록 지사는 “고물가·고금리의 경기 침체와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올해도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하고 소중한 마음이 모여 온도탑이 더욱 뜨겁게 끓어오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정·변은진 기자

영하권 ‘뚝’…일부 지역 눈

2일부터 광주·전남은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본격적인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

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일 광주·전남 최저·최고기온은 각각 영하 1도-영상 4도, 6-12도로 예보됐다. 이날 최저기온은 전날보다 5도가량 낮아 매우 춥겠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3일 담당·곡성은 최저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져 가장 춥겠다. 나머지 지역 최저기온 분포는 영하 3도-영상 2도로 예상됐고 최고기온도 2-7도 분포를 보이겠다.

또 광주와 전남 중부 내륙은 이날 자정부터 오전 6시, 전남 서해안 지역은 하루 내내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전남 북부 서해안이 3-8cm로 가장 많다. 전남 서해안은 1-5cm, 광주·전남 중부 내륙은 1cm 안팎이다.

4-5일 최저기온은 각각 영하 4도-영상 1도, 영하 3도-영상 3도로 예보되면서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은 가시 거리가 짧겠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도 나타나겠다”며 “차량 운행 시 저속 운행 등을 통해 교통 및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형우 기자

‘수완지하차도 노선 변경’ 부실 검증 도마위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심의 단계 위험요인 인지하고도 강행
착공 이후 우려 현실화…책임론 비등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13공구(농협유통센터사거리-운남교차로) 수완지하차도 구간의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해당 구간이 애초 설계와 다른 노선으로 변경된 과정에서 이미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광주시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6년 도시철도 2호선 최초 설계에서는 이 구간의 노선이 수완지하차

도 우측(하나로마트 방향)을 지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다.

그러나 235정거장과 실제 노선 사이의 거리가 멀어 이용 불편이 크다는 주민 민원이 제기되자, 광주시는 2018-2020년 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해당 지점을 다시 검토했다.

초기에는 기존 노선을 유지하면서 지하차도를 도시철도 전용으로 전환하거나 정거장 출입구를 추가해 접근성을 보완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결국 정거장과 상가·주택가에 더 가까운 수완지하차도 좌측으로 노선을 이동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당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자료에 따르면 심의위원들은 좌측 노선이 접근성·편의성 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했으나 동시에 고층 건물과의 근접으로 인한 안전 문제, 지장물 증가, 공사비 상승 등 여러 위험 요소에 대한 우려를 함께 제기했다.

설계자문의견서에는 예산 확보, 지반 보강, 민원 관리 등의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포함돼 있었다.

그럼에도 광주시는 2021년 변경된 노선을 확정했고 2023년 사업계획 승인 후 2024년 1월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공사에 착수하자마자 심의 단계에서 우려됐던 문제들이 현실화했다. 지하차도와 고층 빌딩이 밀집해 굴착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고 다양한 지장물이 복잡하게 얽혀 시공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2면에 계속 /변은진 기자



Today

‘차량소화기의무화’ 1년 법 실효성 의문 6면

위기의 자영업·북구 대표 상권도 ‘흔들’ 12면

구단 FA 소극 대응…KIA 팬들 ‘원성’ 16면

전액국비 광주디지털훈련센터 장애인 직업훈련생 모집

▶ 훈련내용 : 디지털 일반과정

	디지털 리터러시 (컴활2급준비반)	컴퓨터를 활용한 실무오피스 교육
	디지털 영상편집	이미지 편집, 제작 및 영상 편집 기초교육

▶ 입학안내 및 지원사항

- ✓ 지원자격 : 18세 이상인 구직을 희망하는 등록 장애인
- ✓ 모집시기 : 연중 수시
- ✓ 전형방법 : 입학선발평가
- ✓ 훈련기간 : 1개월 ~ 6개월

▶ 훈련생 특전 :

훈련비 전액지원, 중식 제공, 교재 및 실습재료 제공, 훈련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지급

구 분	취업성공패키지(해당자에 한함)	취업성공패키지 비대상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0,000원	-
참여수당	최대 월 284,000원	최대 월 200,000원
교통비	최대 월 50,000원	

※ 훈련수당 및 취업성공 수당은 대상자 자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